

원자력을 위한 세계 여성의 역할

신 영 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WIIN) 총재

여성과 안전

독일의 NGO 연구 전문가인 빌트그루버(Otto Wildgurber) 박사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원자력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이다. 여론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어쩌서 여성이 남성보다 원자력을 더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왜 그런지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자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안전과 위기에 대한 본능적 인식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만큼 거부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그 새로운 생명이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보살펴 주어야 하는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 특유의 감각과 가치관, 그리고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한없는 인고를 수반하는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여성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막중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자기가 잉태한 생명, 자기가 보살펴야 하는 자식에 대하여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본능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슬로우(Abraham H Maslow) 교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여섯 단계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되는 욕구가 생존에 대한 욕구임을 설명했다.

생존에 대한 욕구는 생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은 생물학적 욕구, 또는 사회 활동에 대한 욕구보다도 더 기본이 되는 욕구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고 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생존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존속시키는 입장에 있으므로 남성에 비하여 생존권에 대한 집착이 강하며 그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려고 노력한다. 여성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거부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하겠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이 우리 눈앞에 등장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날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기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거부 반응은 대단한 것이었다. 기차를 타면 뇌신경에 영향을 주어 생명을 단축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돌기까지 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다.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그래서 자동차 앞에 말 탄 사람을 가게 하여 경고하도록 했다. 석유가 처음 사용될 때 미국 의회는 석유가 문명의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명서를 내기까지 했다.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미국 스탠포드 대학생들은 컴퓨터가 비산업적이라고

하여 파괴하였다.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과학 기술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이것이 인류 문명을 파괴하려는 두려운 존재라고 주장하고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원자력이 파괴의 수단으로서 우리 앞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방사선은 보이지도 않고 냄새 맡을 수도 없으며 느낄 수도 없는 존재이다. 사람들은 현실 속의 위험보다는 보이지 않는 상상의 위험에 대하여 더 두려워하는 법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방사선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무조건 기피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안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지닌 여성으로서 새로운 과학 기술인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하여 다른 누구보다도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심리면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을 위한 세계 여성의 활동

세계적으로 볼 때 원자력 이용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50년이 채 안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전력 생산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방사선과 동위원소의 이용은 건강·식량·환경 등 현실적인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원자력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폭 넓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원자력발전소·병원·산업체·연구 기관 등 각 부문에 걸쳐 여성 전문가들의 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 이해 증진에 있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여성과 차세대 어린이들에 대한 원자력 이해 증진이 효과를 거둔다면 국가 원자력산업의 추진에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낳아 키우는 여성은 원자력 에너지나 방사선에 대하여 거부 반응이 강하므로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는 여성이 중요한 대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여성은 새로운 과학 기술이나 거대 산업에 대한 특유의 견해와 감각이 있으므로 여성으로서 같은 여성과 차세대층에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

실제로 여성을 대상으로 원자력 이용과 안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 여성의 시선과 여성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성으로서 여성에게 대응하는 방법이 성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세계적으

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여성으로서 여성에게 원자력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자는 목적 아래 8년 전인 1992년 유럽에서 「세계원자력여성모임」 즉 Women in Nuclear(WIN)가 창립되었다.

첫 준비위원회는 핀란드에서 열렸다. 핀란드에 원래부터 결성되어 있는 「에너지 채널」의 연차 회의에서 WIN의 결성이 구체화되었다.

처음에는 유럽의 몇 나라와 러시아를 비롯한 과거 동유럽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원자력 전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WIN을 결성했다. 그러나 지금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많은 나라들에서 WIN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게 되었다.

세계WIN은 원자력 안전성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관리, 에너지 사용과 지속적인 발전, 환경 보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등에 대하여도 입장을 정리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원자력 이용과 안전에 대한 범세계적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는 한가족

세계WIN은 창립 이듬해인 1993년 프랑스의 파리에서 첫 연차 대회를 가졌다. 초창기라서 10여개 국가의 대표들만 참석하였다.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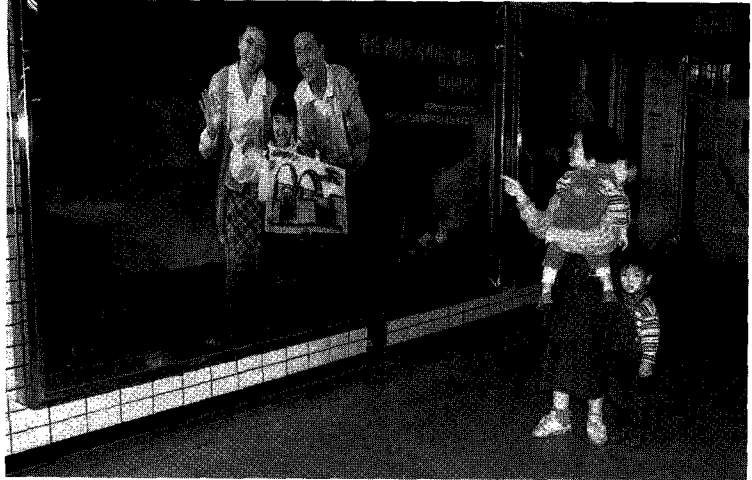


WIN은 제1차 파리 대회 이후 독일(2차)·스웨덴(3차)·러시아(4차)·스페인(5차)·타이페이(6차)·워싱턴(7차)에서 연차 대회를 가졌고 올해는 6월에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8차 연차대회를 가졌다.

세계WIN의 내년도 연차 대회는 우리 나라에서 열리도록 결정되었다. 연차 대회를 매년 동양과 서양에서 번갈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우리 나라의 여성에 의한 원자력 이해 증진 활동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견학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원자력 사업은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원자력 사업의 모델 국가로 보고 눈여겨보고 싶어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하겠다.

내년 4월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WIN의 제9차 연차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세계WIN 대회가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 나라 일반 대중, 특히 사회 여론 주도층에게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 파급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은 지난 6월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WIN이사회에서 세계WIN의



여성과 차세대 어린이들에 대한 원자력 이해 증진이 효과를 거둔다면 국가 원자력산업의 추진에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낳아 키우는 여성은 원자력 에너지나 방사선에 대하여 거부 반응이 강하므로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는 여성이 중요한 대상일 수밖에 없다.

첫 합동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세계WIN의 취지에 찬동하는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단체, 그리고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처럼 비록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모임은 아니더라도 세계WIN과 목적이 같은 단체는 세계WIN의 합동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로써 세계WIN은 출범한 지 8년이 지난 오늘날, 51개국의 회원국에 협동 회원까지 합하여 1만 2천명의 회원을 거느리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세계 WIN은 원자력 단체로서는 IAEA와 같은 유엔 산하의 단체를 제외하고는 가장 규모가 큰 NGO로 성장한 것이다.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세계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소외되는 것이 오늘

날의 현실이다.

세계WIN에서의 한국의 위상

세계WIN의 국내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국가는 51개국 회원국 중에서 22개국에 이른다. 아르헨티나·벨로루시·브라질·불가리아·캐나다·체코 공화국·핀란드·프랑스·헝가리·인도네시아·일본·멕시코·루마니아·러시아·슬로바키아·스페인·스위스·타위완·우크라이나·미국에 세계WIN의 국내 조직이 결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이 세계WIN의 국내 조직으로 인정되고 있

다. 이렇듯 국내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국가는 세계WIN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3년 전인 1998년 타이페이 대회때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의 임원진을 중심으로 하여 원자력문화재단과 원자력연구소의 몇 분이 세계WIN의 회원으로 가입한 방 있다.

세계WIN에는 이 모임의 취지에 찬동하는 남성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IAEA 사무총장을 지낸 한스 블릭스 박사 같은 분도 세계WIN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다.

세계WIN의 회장은 창립 당시 스위스 전력 회사 연합에 근무하고 있는 이렌느 에거르터 여사가 초대 회장으로서 수고하였고, 2대 회장은 스웨덴 국영 전력 회사인 바텐팔 소유의 링할스 원자력발전소에서 환경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아그네타 리싱 여사가 맡아 했다. 리싱 여사는 현재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우라늄 연구소의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3대 회장으로는 지난 6월 선임된 IAEA 원자력시설안전국장인 아니크 카르니노 여사가 맡아하고 있다.

세계WIN은 국내 조직을 통하여 일반 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반 시민 단체와의 토론회, 학생과 교사를 위한 워크숍, 지

역별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세미나, 여성 사회 여론 주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원자력 시설 사찰,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류, 세계적 현안 사항에 대한 성명서 발표 등은 세계WIN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메시지는 첫째가는 토픽이다.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는 이익과 불이익, 혜택과 손해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원래 세계WIN의 회원 자격은 원자력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 여성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원자력 발전이나 핵연료 분야, 방사선 이용 분야, 그리고 원자력 홍보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전문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의 회원들은 비록 전문직이 아니지만 세계WIN의 취지에 합당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세계WIN의 국내 조직으로 인정되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 전문인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우리 나라 여성 원자력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세계WIN의 국내 조직으로서 WIN-Korea의 결성이 준비되어 있다. 아마도 내달에는 출정식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 산업의 규모와 국제적 위상으로 보아서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모임은 진작부터 결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었다. 늦은 감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나라에도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모임이 출범하게 되었다.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과 손을 맞잡고 원자력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기를 중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WIN-WIN의 협력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 원자력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여성 전문인의 수는 약 80명이라고 알고 있다.

이밖에도 각 대학이나 병원·농진청·식품의약청·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일반 산업계에서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전문인들의 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WIN-Korea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 원자력계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원자력 안전 문제 등 원자력 이슈에 대하여 일반 국민, 특히 여성과 차세대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그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위상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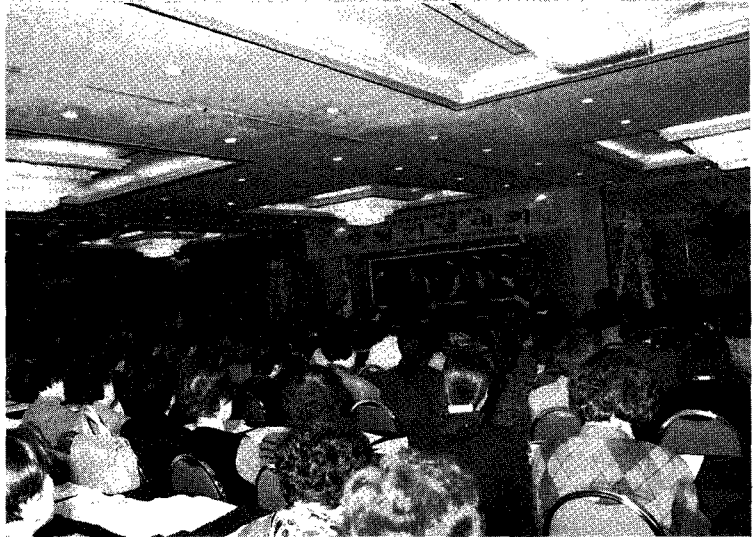
다.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은 원자력 비전문인의 모임이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여성 원자력 전문일들과 손을 맞잡고 서로를 보완하여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해 일을 하게 된다면 대단히 효과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원자력 발전이나 방사선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여자가 어떻게 그런데서... 위험하지 않느냐? 임신에 영향을 받거나 않을지...” 라는 걱정을 듣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공연한 불안감과 막연한 걱정을 씻어 줄 필요가 있다. 여성 원자력 전문인들에 의한 과학적인 설명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세계WIN의 국내 조직이 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회원 수가 1백명 이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프랑스·러시아·체코공화국·인도네시아·타이완 정도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30명에서 60명 정도의 규모이다. 어떤 국가는 단 몇명의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세계WIN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이 세계WIN의 협동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 규모에 있어서 단연 세계 첫째로 꼽히게 되었다.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의 가입으로 인하여 세계WIN의 전체 회원 수는 약



여성을 대상으로 원자력 이용과 안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 여성의 시선과 여성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성으로서 여성에게 대응하는 방법이 성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1만 2천명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굳이 WIN-Korea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가입하게 되면 그야말로 세계WIN은 우리나라의 힘을 입어 위상을 떨치게 되는 셈이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한국 여성의 위상이 높아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다짐으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WIIN)」은 앞으로 발족하는 여성 원자력전문인 모임(WIN-Korea)과 합심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에 한층 매진코자 한다.

WIIN-WIN 전략이면 어떠한 어

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적으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주어 국가 원자력 안전 문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한층 높이고자 하며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여성 원자력인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세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지난 날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모두 서막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보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WIIN은 WIN-Korea와 협동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에 새로 시작한다는 다짐으로 임하고자 한다. ☞